



금속 변화와 혁신! 도약하는 경주지부! 경주지부

전국금속노동조합
경주지부
24.09.04
**교섭
속보**
VOL.21

발행 : 정진홍 | 발행일 : 2024.09.04.(수) | 전화 : 054-748-3223 | 팩스 : 054-773-9270

일진베어링, 불성실한 교섭 행태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현대아이에이치엘지회 3차례 제시 끝에 최종 의견접근



24년 9월 4일 수요일, 현대아이에이치엘 사측의 요청으로 21차 지부집단교섭이 08시 30분부터 경주근로자복지회관 3층(경주지부 사무실 3층)에서 개최되었다.

현대아이에이치엘 사측은 오늘 총 3차의 안을 제출했다. 사측 현대아이에이치엘 교섭대표 박기병실장은 “17일째 파업으로 노-사 모두 어려운 상황이다. 이미 회사는 부담하기 어려운 수준의 제시안을 제안해왔지만 오늘도 안을 제시하겠다”며 지회와 조합원들의 이해와 현명한 판단을 요청했다.

현대아이에이치엘지회 이명호지회장은 “저희 사업장 때문에 이른 아침에 교섭에 오시게 하고, 그간에도 여러 배려를 해주신 것에 대해 모든 교섭위원들에게 감사하다”고 전하며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면 힘든 시기의 연속이었다. 회사 역시 어려운 시기에 배려해왔다는 것은 공감한다. 다만 힘든 시간, 지나온 과정을 상기하시고 관행도 있으니 이것들을 감안하여 마무리 할 수 있는 안을 달라”고 사측의 결단을 촉구했다.

현대아이에이치엘	1차	2차	3차(의견일치)
기본급	390원 (월 93,600)	390원 (월 93,600)	400원 (월 96,000)
일시/성과급	1,300만원	1,320만원	1,320만원 + 상품권 30만원
비고	기본급인상 10/7 이전, 타결일시금 9/9, 임금손실위로금 9/9 품질목표달성 격려금 11/29, 상품권지급일 실무협의 지급일기준 2개월이상 근무자, 2024년 입사자에 공헌일수 적용		



이후, 노측 대표 정진홍 지부장은 집단교섭 참가사업장이며 현재 법정관리중인 엠에스정밀 사측 관리인과의 면담일정을 위해 이석해야한다며 사측 교섭위원에게 양해를 요청했고 차상호수석부지부장에게 교섭대표를 위임했다.

1차 정회 후 현대아이에이치엘은 2차 안을 제시하였으나 일진베어링 사측은 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일진베어링지회 김희진 지회장은 “금일 제시안을 사측이 내지 않고 있다. 일진 사측은 파국을 원하는 것인가? 회사 경영은 좋을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다. 힘든 상황이라고 해도 지회 교섭위원들이 검토할 만한 안을 내야 한다. 파국을 원하지 않으면 안을 제시하라”고 힘주어 말했다. 그럼에도 일진베어링 사측은 오늘 단 한차례도 안을 제출하지 않아 공분을 키웠다.



현대아이에이치엘지회는 교섭 종료 후 조합원 2차 총회를 개최했고 가결되었다. 이제 미타결 사업장은 일진베어링 한 곳이다. 불성실한 일진베어링 사측의 태도가 지속된다면 경주지부 차원의 할 수 있는 모든 투쟁을 준비하여 일진 자본과의 총력투쟁을 결의 할 것이다.

